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가 산업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조 흠 학* · 이 재 희* · 이 경 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The influences of Union and Labor Relations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In Korea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Hm Hak Cho* · Jaehee Lee* · Kyung Yong Rhe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y and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labor relations on occupational accident rate in Korea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Data in 201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end Survey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was lower in unionized company than non-unionized company. And amicable labor relationship reduces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The policy should be needed to support labor union and improve labor relationship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Keywords : occupational accident rate, labor union, labor relation, safety

1. 서 론

기업의 재해율 감소 등 산재예방활동의 핵심적인 요인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 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1].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보면 노사관계와 임금, 고용 및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노사관계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

국내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안전보건활동과의 관계성만 파악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산업 재해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2][3].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기업의 안전관리 방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율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1 이론적 배경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 Corresponding Author : Hm Hak Ch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400 Jonga-ro Joong-gu Ulsan,
M · P: 010-4234-1714, E-mail: hmhak@hanmail.net

Received July 20, 2014; Revision Received September 19, 2014; Accepted September 19, 2014.

1977년 석유화학 및 원자력 노동자 국제연합은 각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정보를 얻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각 고용주에게 위험 물질 및 의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전국의 절반이상의 공장들은 이러한 노동조합 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장 내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과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었다. 또한 1984년 미국의 자동차 노동조합은 각 노조의 작업시간 마다 4센트씩의 금액을 누적하여 산업 안전보건교육기금을 형성하였고, 이 기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노조대표, 회사 경영자,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작업 중 노출 및 자동차 공장 사고의 주요원인이 석면, 에너지 잠금, 사람운반 사고, 치명적 밀폐된 공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안전교육 및 훈련이 이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조합은 부상과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상자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금속 스템프 공장의 근로자의 암 발생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여 산업위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타르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이 작업 중에 연기와 증기에 노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휴대용 환기 장비, 배기가스 시스템, 용접간막이 설치, 인공호흡기 구비, 바닥 코팅물 탐색을 통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작업장 내 유해한 배출가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예를 들면 일본의 철도조합은 수리 공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요통을 호소하는 것의 원인이 작업상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작업장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42% 정도의 근로자들이 요통으로 고통 받았고 20%의 근로자가 요통을 이유로 결근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요통의 원인으로서는 중량물 다루기, 반만 앉은 자세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노동조합은 중량물을 다룰 때 수동 작업을 최소화하고, 척추의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현대식 장비에 대한 투자가 실시되었으며, 업무 실습과 근로자 건강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요통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의 유통 노동조합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상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업무상 질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트에서는 반복 연장 근무에 대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만약 작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후속조치와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격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마트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일본의 제조업 노동조합에서도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허리 통증과 경건완증후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 체육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공장에서 이동해야 하는 물건의 무게를 표시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작업장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허리 통증과 경건완증후군의 재해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노동조합의 형성이 산업재해율과 부적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6-8]. 우선 노동조합의 주 목적이 임금협상을 통한 임금 향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안전에 투자하는 금액을 임금향상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져 오히려 산업 재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진 환경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작업장이 산업재해율이 높은 작업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산업재해율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 협조정도에 따라 산업 재해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및 분석 대상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동향을 모니

터링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체로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 서비스업 2,000개소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사례가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조업 3000개소, 건설업 1000개소에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2 분석 방법

독립변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노사관계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정도였다.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으며 노사관계 협조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척도를 비협조적, 보통, 협조적 집단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산업 재해율을 활용하였다.

<Table 1>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노동 조합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있음	955,801	4,588	0.48	[0.47, 0.49]
없음	2,622,719	20,457	0.78	[0.77, 0.79]

구분한 각 집단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 재해자 건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업 재해율을 산출하였다.

산출한 산업 재해율이 각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의 산업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의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제조업 결과

제조업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는 각각 955,801명, 2,622,719명이었다 (table 1).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는 각각 4,588건, 20,457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재해율을 산출한 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는 재해율이 0.48이었으며 없는 조건에서는 0.78이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은 0.47-0.49였고 노동조합이 없는 조건에서 95% 신뢰구간은 0.77-0.79로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labor rel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노사 관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비협조적	50,782	606	1.19	[1.18, 1.21]
보통	530,068	4,299	0.91	[0.89, 0.92]
협조적	2,997,670	19,460	0.65	[0.64, 0.66]

<Table 3>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Company Size and Labor relation Compan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구분	규모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100인 미만	비협조적	29,610	411	1.39	[1.37, 1.42]
	보통	388,366	140	0.88	[0.86, 0.90]
	협조적	1,751,137	15,824	0.90	[0.88, 0.92]
100-300미만	비협조적	7,045	98	1.40	[1.37, 1.43]
	보통	82,513	3,413	1.26	[1.24, 1.28]
	협조적	502,727	1,677	0.33	[0.32, 0.34]
300인 이상	비협조적	14,127	97	0.68	[0.67, 0.69]
	보통	59,188	1,043	0.58	[0.57, 0.59]
	협조적	743,805	1,959	0.26	[0.25, 0.26]

제조업에서 노사관계의 협조정도에 따른 재해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비협조적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50,782명, 보통인 경우는 530,068, 협조적인 경우는 2,997,670명이었으며,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는 각각 606건, 4,299건, 19,460건이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재해율을 살펴보면 비협조적인 조건에서는 1.19, 보통인 조건에서는 0.91,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65였다. 세 조건의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재해율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100미만, 100-300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비협조적이거나 보통인 사업장보다 협조적인 사업장이 산업 재해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인 사업장의 경우도 비협조적인 사업장의 경우보다 재해율이 모든 규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건설업 결과

건설업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254,860명이었으며 없는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1,380,921명이었다. 두 조건의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는 각각 1,040건, 9,036건이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재해율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조건에서는

0.41이었으며, 없는 조건에서는 0.65였다. 두 조건의 95% 신뢰구간은 각각 0.39-0.43, 0.63-0.67로 나타나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unionized and non-unionized companies in Construction Industry

노동조합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있음	254,860	1,040	0.41	[0.39, 0.43]
없음	1,380,921	9,036	0.65	[0.63, 0.67]

<Table 5>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labor rela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노사관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비협조적	18,259	313	1.72	[1.70, 1.74]
보통	293,032	2,758	0.94	[0.92, 0.96]
협조적	1,313,546	6,917	0.53	[0.51, 0.55]

<Table 6> Occupational Accident Rate by Company Size and Labor relation Companies in Construction Industry

규모	구분	근로자수	업무상 사고 질병 건수	재해율 (%)	[95% 신뢰구간]
3억 원 미만	비협조적	3,471	131	3.78	[3.76, 3.80]
	보통	54,919	839	1.53	[1.51, 1.55]
	협조적	255,096	1,611	0.63	[0.61, 0.65]
3-20억 미만	비협조적	2,110	182	8.64	[8.62, 8.66]
	보통	117,397	1,140	0.97	[0.95, 0.99]
	협조적	330,231	2,858	0.87	[0.85, 0.89]
20-120억 원 미만	비협조적	11,070	0	0.00	[0.00, 0.02]
	보통	43,445	372	0.86	[0.84, 0.88]
	협조적	188,087	1,606	0.85	[0.83, 0.87]
120억 원 이상	비협조적	1,608	0	0.00	[0.00, 0.02]
	보통	77,271	407	0.53	[0.51, 0.55]
	협조적	540,133	842	0.16	[0.14, 0.18]

비협조적인 사업장과 보통인 사업장, 협조적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각각 18,259명, 293,032명, 1,313,546명이었으며, 업무상 사고 질병건수는 각각 313건, 2,758건, 6,917건이었다. 이를 활용하여 재해율을 산출한 결과 비협조적인 조건에서는 1.72, 보통인 조건에서는 0.94,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53이었다. 각 재해율의 95% 신뢰구간은 비협조적인 조건은 1.70-1.74, 보통인 조건에서는 0.92-0.96, 협조적인 조건에서는 0.51-0.55이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재해율의 신뢰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통계적으로 재해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업장의 규모와 노사관계 협조 정도 수준에 따라 재해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3-20억 미만의 비협조적 작업장 집단과 120억 원 이상의 비협조적 집단의 사고 건수가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고 건수가 0이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규모 조건에서 비협조적인 사업장 집단과 보통인 사업장 집단보다 협조적 사업장의 집단이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 재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찰

본 연구결과 기업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 간의 협조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도 사업장의 신뢰도와 협조가 원활한 사업장이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재해율에 신뢰구간을 산출함으로써 정확하게 노동조합 유무와 노사관계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산재예방활동과 그 결과에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주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안전경영정책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충실할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역할이 산업재해 예방에 중추적일 것이라는 것은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Johansson과 Partanen은 자본주의 체제와 세계화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증진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덴마크와 핀란드의 참여적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9]. Economou

와 Theodossiou는 1982년부터 2006년 사이의 EU가입된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구성된 패널 샘플을 통해 국가 총생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예방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0].

Sinclair, Martin, Sear의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의 존재가 안전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Chen과 Chan의 연구에서도 중국 내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제언이 실제로 사업장내 산업안전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생산력 증진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가치와 안전성에 무게를 둬으로써 산업재해와 생산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안전한 작업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 토대로 산업재해예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제언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장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사업장의 노사관계 환경이 가지는 사업장 안전 효과의 경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안전환경 투자, 근로자의 안전행동, 근로자와 기업의 재해 신고 행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연구모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어떠한 측면에서 산업 재해율을 낮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비활성화 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조합 이외의 추가적인 노사관계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차이를 검증하여 노

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다양한 세부업종에서 산업재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회 및 기업 내에서 경제적·신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닌다. 따라서 거의 하루에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작업환경에서 안전위험 요인의 나타나지 않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안전에서도 상생의 노사문화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관리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안전과 관련된 노사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도모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6. References

- [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2013),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labor relations and industrial accident.
- [2] Yong-Seung Park and In-Gang Na(2010), "Effects of union and labor relations climate on workplace injury",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4): 115-132.
- [3] Robert R. Sinclair, James E. Martin, and Lindsay E. Sears(2010), "Labor unions and safety climate: Perceived union safety values and retail employee safety outcom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2(5): 1477-1487.
- [4] Gerald Markowitz(1993), "Toil and toxics: Workplace struggles and political strategies for occupational health."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18(4): 993-996.
- [5] Hideyasu Aoyama(1982),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Japa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21: 207-216.
- [6] Michael J. Moore, and W. Kip Viscusi. (1990), Compensation mechanisms for job risks: wages, Workers' Compensation, and product liabil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7] J. E. Biddle, G. A. Zarkin(1998), "Worker preference and market compensation for job risk",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 660-667.
- [8] Richard J. Butler(1983)"Wage and injury rate response to shifting levels of workers' compensation." Safety and the Work Force. Worrall, JD, Ed. Cornell University, ILR Press: Ithaca, NY.
- [9] Mauri Johansson and Timo Partanen(2002), "Role of trade unions in workplace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2(1): 179-93.
- [10] Athina Economou and Ioannis Theodossiou (2011), "Join union be safe: the effects of unioniz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EU. Centre for European Labour Market Research.
- [11] Meei-shia Chen and Anita Chan(2004), "Employee and union inputs int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easures in Chinese facto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58(7): 1231-1245.

저 자 소 개

조 흠 학



단국대학교에서 법학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팀에 재직 중.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정책연구일반,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법 및 법률 일반과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분야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경 용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산업사회학, 보건사회학, 사회역학 및 사회정책 분야 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재 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팀에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안전 심리, 조직 심리학, 실험 심리학 등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